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2018. 5. 26

Contents

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08
   ① 국무회의란? 08
   ② 통일모의국무회의란? 09
2.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10
   ① 팀 구성하기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주제 선정하기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토론 쟁점 찾아내기
   ⑥ 직책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 주제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3. 대본 작성 요령 14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③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 보기
   ④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 보기

Ⅱ.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목적 및 개요 20
2. 시행 주제 20
3. 시행 내용 21
4. 시상 내역 21
5. 심사 기준 21
6. 대회 일정 22
7. 문의 23

Ⅲ. 참가 신청 서류 (제3회 샘플 포함)

1. 참가신청서 양식 26
2. 대본 기획서 샘플 (제3회 최우수상 팀 샘플 보기) 28
3. 대본 샘플 1 (제3회 최우수상 팀 샘플 보기) 32
4. 대본 샘플 2 (제3회 우수상 팀 샘플보기) 52

Ⅳ. 제3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1. 최우수상 수상 수기 76
2. 우수상 수상 수기 78
3. 장려상 수상 수기 80

Ⅴ. 제3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84

Ⅰ.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TIP1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① 국무회의란?

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입니다.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외)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회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란?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의입니다.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 정책을 발굴합니다.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수준을 높입니다.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의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2.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TIP2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동료들과 마음을 합하여 모의국무회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명에서 13명까지 가능합니다.
- 행사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TIP3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 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건의 전개

총 시간이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안건을 선정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십시오.

관련 자료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교육원 발간자료는 붙임 참조)

2015년~2017년에 실시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진대회의 우수작을 참조하여도 좋습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통일교육 연구자료-공모전 자료'에 게시)

통일 모의국무회의 주제는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준비 포인트

통일 전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통일된 한국은 수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동시에 통일한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최대한 활용할 새로운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TIP4 아래 자료를 통해 통일이 가져다 주는 국내외적 편익을 알아보고,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에 참고해 보세요.

통일의 국내적 편익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 UN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통일시 생산가능인구가 전보다 4% 증대(약 20만여명)하고 내수 및 노동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 병력 감축으로 약 133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가능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효율성 증대

-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통일 시 국방비 절감효과는 2013년~2050년까지 누적 총 1조 8,862억$
- 국방비 절감효과는 연구별로 최소 246조원(조동호, 1997)~최대 1조 8,862억(현대연구원, 2014)까지 편차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 통일 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102.9% 증대 예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한반도(조선일보, 2014.1.6)

- 현재 남한 대북리스크로 신용등급 평균 2등급 하향화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남북 통일 후 5년 안팎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한두 단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
- 통일로 한국 신용등급이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 효율성 증대

고용 창출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통일 후 40년간 연평균 65만 6천명, 총 2,953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
- 한국정치학회(2014)는 통일 후 10년간 연간 119만명, 총 1,190만명 취업유발효과를 예측
- 통일 후 북한 3차산업 발달은 3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유발(통일연구원, 2014)

2,600만 관광대국(조선일보, 2014.1.14)

- 현대경제연구소(2014)에 따르면 통일한반도에는 매년 2,600만 이상의 관광객 방문 예상
- 관광객 유입을 통해 약 60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

자원 대국, 통일한반도

- 지하자원 국내 조달로 연간 153.9억$ 절감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한반도의 안보적 편익 :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소

통일한반도의 인도적 편익

· 이산가족 문제의 해소

· 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해소

· 냉전 청산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 절감액은 188조원(조선일보, 2014.1.6)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통일 전 10건 (세계 21위)에서 12건 이상(19위)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

통일의 국제적 편익

통일한반도·중·일·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 조선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2040년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NAFTA, EU를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발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안보적 편익 :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 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

규범·문화적 편익

· 통일은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사람, 물자, 문화가 융합되어 동아시아 신문화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정책 안건의 예 -

한-유럽간 대륙철도 증설 10개년 계획

백두산 관광 자원 개발단 선발 정책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평양 유엔사무국 운영 정책

동북아 농업시장 발전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 정책 (제2회 수상 주제)

폐 군수 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제3회 수상 주제)

정책 안건 선정이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주축이 되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

TIP5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 쉬워집니다.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의 최소 단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6개의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 / 국토부 / 통일부 / 법무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행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며 직책 부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이라면 직책 부처명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엔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TIP6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합니다.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

TIP7 각자 발표할 정책을 안건으로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 선정한 주제의 주무부처는 간략히 모의국무회의 안건을 작성합니다.
- 주무부처가 아닌 부처라도, 해당 안건에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부처의 입장까지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에 '유관부처 협의 결과' 등의 목차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개의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정리, 안건을 작성하는 방식 입니다.
- 안건의 분량은 8~10페이지 이상으로, 통일 이전 혹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을 담습니다. 이 목차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십시오.
- 작성한 안건은 대본에 '요약'으로 수록하여 (2페이지 내외) 함께 제출하십시오.

⑥ 부처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 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직책 부처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객관적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눈빛과 호소력 있는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시키면서 토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하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성을 기획합니다.

3. 대본 작성 요령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TIP8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개의 안건, 혹은 몇 개의 장면(Scene)으로 모의국무회의를 연출할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결,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TIP9 서류 전형 후 예선 참가를 위해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보다 세련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본에 약간의 수정·첨가는 할 수 있으나 정책 주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된 정책 주제로 예선과 결선을 진행하며 결선에서는 의결된 정책을 발표하고 팀 간 정책 검증 및 논쟁 방식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 표지와 내지를 구분합니다.
- 표지에 담을 내용과 내지에 담을 내용을 구성합니다.
- 표지를 포함하여 8~10페이지 이상으로 모의국무회의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 규격의 예 - A4 / 10~11pt / 행간 160 / 상·하 여백 20mm / 좌·우 여백 25mm)
- 대본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각 국무위원들의 행동, 표정, 몸짓 등의 표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음향이나 영상물이 제시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요약분 (2페이지 이내)의 주요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③ 대본 구성 양식

표지 기재내용	내지 기재내용	요약
제목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주제** 모의국무회의 정책 관련 주제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팀 대표 연락처 및 제출 날짜**	**등장인물** 수행 직책 및 팀원 이름 **Chapter** 각 Chapter별로 국무회의 대본 구성 화면의 영상이나 음향, 등장인물의 행동 등도 기재 **페이지 기재**	주요 내용 요약
[표지] - 1페이지	[내지] - 8~10페이지 이상	[요약] - 2페이지

표지 샘플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토론 안건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내지 샘플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 제목 :
· 안건 :
· 등장인물 (직책부서 포함)

· Chapter 1
- 필요에 따라 Chapter와 Scene별로 대본을 구성합니다.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모든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분	자료명	발간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7장)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방안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장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영상자료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고등학생 및 일반인
	통일 꼭 해야 되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법 소개	
	분단에서 통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비 과제 제시	
	세 친구의 1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II.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II.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후원 : 통일부(통일교육원)

1. 목적 및 개요

통일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의 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이러한 모의국무회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면서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2. 시행 주제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3. 시행 내용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시연한다.

- 참가 자격: 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 혹은 통일한국모의국무회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팀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 대본 (50분용)을 작성하여 kaurinu21c@gmail.com으로 메일 접수한다.
- 참가비 없음
- 팀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 수행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6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한다.
- 부처 선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처 명을 현재의 부처 명과 병기한다.)
- 대본의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50분간의 국무회의 시연 내용으로 준비한다.

4.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 상금 3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부상 : 팀 전원 5박6일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우수상 1팀 : 상금 2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2팀 : 상금 1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5. 심사 기준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워크 등

6. 대회 일정

· **4월 10일 ~ 5월 14일** : 신청 접수 (5월 14일 24시 이메일 신청 접수 종료)

· **5월 15일 ~ 5월 16일** : 서류 심사 진행, 8개 팀 1차 선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5월 19일(토)** : 예선 (오후 13시 30분) - 팀당 50분간 진행 (8개 팀 경연 후 4개 팀 선정)

· **5월 26일(토)** : 결선 (오후 13시) - 팀당 15분간 발표 후 4개 팀 정책토론 토너먼트 진행

예선 (5월 19일 토요일)

* 예선 장소 :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일정	시간	내용	비고
5 / 19 (토)	13:30 ~ 13:50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첨	장소 : 대강당
	14:00 ~ 14:50	1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 1개 조가 2개 팀으로 구성 * 1조~4조가 2곳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경연 진행 (총 8개 팀)
	15:00 ~ 15:50	2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6:00 ~ 16:50	3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7:00 ~ 17:50	4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7:50 ~	* 심사위원 평가 취합 및 협의, * 심사위원 A조(3명)에서 1,2위 팀 선발 심사위원 B조(3명)에서 1,2위 팀 선발 총 4개 팀이 결선에 진출	

결선 (5월 26일 토요일)

* 결선 장소 : 추후 공지

일정	시간	내용		장소
5 / 27 (토)	13:00 ~ 13:20	결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첨		
	13:20~ 14:20	1부 (정책발표)	정책 발표	A·B·C·D 팀 15분씩 정책 발표 (발표 방식 : 대통령 모두발언-각 정책부처 발언-의결된 정책에 대한 총론)
	14:30~ 15:30	2부 (정책토론 및 검증)	팀 간 지정공격 및 방어 (15분)	각 팀 대표(3명씩) 출전, 상대 팀 발표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대응 (해당 팀 순서에는 나머지 3개 팀이 질의하며, 해당 팀은 그에 따른 반론 및 대응한다.)
			작전 타임 (2분)	팀 의견 정비 및 자유 토론 전략 수립
			자유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 전원 자유논쟁 상대 정책의 오류 및 허점 공략,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및 방어
			방청객 QnA(5분)	방청객이 토론에 참여하여 결선 팀에게 질의문답
			작전 타임 (2분)	팀의 최종 변론 정리를 위한 준비
			최종 변론 (10분)	상대 팀에 대한 반론 포함, 자신의 팀에 대한 강점 및 타당성 전달,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는 스피치 능력 표출
	15:30~ 16:00	통일 토크 콘서트 * 사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접수 *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랜덤으로 추천하여, 질의응답 진행		
	16:10 ~ 16:40	심사 발표 및 시상		

7. 문의

전화 : 02-6053-2001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 kaurinu21c@gmail.com

통일 모의국무회의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unifi2016

<붙임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 현황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연혁

· 1983.8.27 북한 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창립(초대회장 : 민병천(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 2009.2.4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로 명칭 변경
- 2010.11.16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설립 등기
- 2018.3.~현재, 김학성 상임대표 취임 (현재 76개 대학, 88개 연구소 가입)

※ 역대 회장 : 2007 우성대(목포대), 2008~2011 김연철(한남대), 2012~2014 유호열(고려대), 2015~2017 김태일(영남대), 2018~현재 김학성(충남대)

협의회 개요

· 설립목적 :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 통일정책의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통일 관련 학술 교류 및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

임원진 명단

보직	성명	소속
상임대표	김 학 성	충남대학교
공동대표	김 재 한	한림대학교
	김 창 희	전북대학교
	남 궁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 근 식	서울대학교
	이 수 훈	경남대학교
	김 정 수	대구대학교

보직	성명	소속
고문	강 성 윤	동국대학교
	김 연 철	한남대학교
	유 호 열	고려대학교
	김 태 일	영남대학교
감사	진 희 관	인제대학교
사무총장	여 현 철	국민대학교
사무국장	김 에 스 라	국민대학교

III.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참가신청 서류

(제 3회 샘플 포함)

1. 참가신청서 양식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참 가 신 청 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팀명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팀 소개	(300자 내외)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 기획서

<경연주제>

* 모의국무회의 참여 동기와 경연주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 그리고 경연에서 발표할 주요정책 등을 기술 * 필요시 자유 형식으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사용 시 주제만 기술 후 A4용지 2매 이내로 별도 문서 파일을 첨부

위와 같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귀중

3. 팀원 명단 및 정보

No.	이름	학교 및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부처 (부처명 변경시 현행 부처명 병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대본 기획서 샘플 (제 3회 최우수상 팀의 예)

안건. 폐 군수공장을 TCA (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 추진 배경

1. 통일한국의 최대 경쟁력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발전하는 공간의 부재
   가. 예술과 과학기술 기반이 튼튼할 때 문화융합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나. 문화예술이 주로 사회체제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 과거 북한 예술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 국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
2. 평화통일로 인해 문을 닫게된 폐 군사시설 처리의 문제
   가. 대규모 군수공장이 국민들에게 주는 위협감이 크다.
   나. 폐장하는 데에 많은 노동과 예산이 지출된다.
3. 통일한국의 기술·문화·예술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
   가. 70여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각 분야에 존재한다.
   나.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사회 간의 격차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한다.
4. 부족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
   가. 통일 이후 체제전환기적 대량실업의 대안이 필요하다.
   나. 북한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임금,단순,계약직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5. 남한과 북한 청년들의 부족한 교류의 기회
   가. 공통분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남북한 청년들의 불협을 해소해야 한다.
   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들이 통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TCA 단지 추진 계획 및 역할

1. 폐 군수공장을 TCA 단지로 재건설한다.
   기존의 형태를 보존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
2. TCA 단지 내에 다양한 공간을 창조한다. 모든 것이 TCA단지 내에서 진행되므로 경제·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위한 교육과 실험의 장, 개발과 생산의 장, 투자유치 및 판매의 장으로의 TCA 단지

<TCA 단지의 역할 >

1. 교육 실험 개발 생산 전시 및 판매, 과학기술 혹은 예술적 재능을 지닌 인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2.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공간을 마련한다.
3. 기술자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TCA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 공장을 마련하여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결과물을 생산해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결과물을 대중에게 전시할 공간 마련, 투자유치에 성공한 상품을 TCA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 기대 효과

<국가 발전의 측면>

1. 통일한국이 TCA 단지를 통해 지니게 되는 문화·예술경쟁력과 기술융합에 의한 창의 경쟁력은 독보적일 것이다.
2.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통일한국은 IT산업의 첨단정보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다.
3. 잠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으로 발돋움 시킨다.
4.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의 보다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

1. 불필요하게 된 폐 군수공장을 폐장하지 않고 공간 재활용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 TCA 단지 운영에는 많은 인력이 요해짐으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북한 지역 주민들의 남한 지역으로의 대량 이주를 해결한다.

4. 통일한국의 랜드 마크로서의 TCA 단지는 많은 해외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국민의 측면>

1. 문화예술이 융성하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정열을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2. 대규모 군사시설·군수공장이 주는 반감이 해소되는 동시에, TCA 단지는 평화통일의 상징이 될 것이다.
3. TCA단지를 통해 조화를 되찾는 남북한의 문화예술은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4.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 참고사항 유관부처 토의사항

1. 미래창조과학부
   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통일한국만의 고유한 원동력으로 발전시킨다.
   나. 폐 군수공장의 부지를 TCA 단지로 재건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다. TCA 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과 과정을 감소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2. 교육부
   가. TCA 단지 내에 독일의 바우하우스 (Bauhaus) 와 같은 예술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나. 기존의 4년제 교육과정이 아닌, 1+2+1 과정이 적합할 것이다.
   다. 교육을 통해 순수 예술 보다는 실용적인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당장의 국가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가. TCA 단지는 관광단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나. 중국의 798예술단지 또한 군수공장을 개조한 것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성공적이라고 판단 받고 있다.
   다. TCA 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4. 국토교통부
   가. TCA 단지는 산업유산의 다층성,활용성,재생성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 가장 적합한 군수공장 부지는 평안남도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잠진리에 위치한 잠진 군수공장이다.
   다. 개발 가능한 면적은 40만 제곱미터, 즉 120,000평이다.
5. 기획재정부
   가. 남북한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나. TCA 단지를 폐 군수공장에 건설하는 것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 본 안건이 실패할 경우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6. 고용노동부
   가. 한반도의 실업률은 통일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남북한 지역 주민들의 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다. TCA 단지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대본 샘플 1 (제 3회 최우수상 팀의 예)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 본

- 토론 안건 : 폐 군수공장을 TCA (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유젠(U-Zen) 팀/장서인

<안건> 폐 군수공장을 TCA (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S#1.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대통령 김상록 :

5월 20일 통일한국 제 20회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자리에서 일어난다) 국가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생) 다음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자리에 앉는다)

S#2. 대통령 모두발언

대통령 김상록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봄기운이 역력한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70여년 간의 분단 끝에 통일을 맞이한 대한민국 또한 새로운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일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백지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좋은 것은 살리고 사회의 불화를 야기하던 것은 과감히 청산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통일이 되어 넓어진 국토

만큼, 증가한 국민의 수만큼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정관념과 관례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하지만,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첫째, 앞으로의 국가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입니다. 과거 남한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과 철강, IT, 반도체 사업은 현재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통일한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주민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70년의 짧지 않은 분단은 두 지역의 모든 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소득,건강,교육,문화,기술 등의 각 분야에 존재하는 차이는 결과적으로 두 지역의 화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이 1년이 되지 않아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하여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하루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간 각국은 서로 다른 노선을 선택했고 그 속에서 많은 불화와 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이 오늘 날의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정적) 국민들만큼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남북한의 통일에 고개를 내저었을 때, 남북한의 구성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분단된 국가속에서 제 각각 통일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안녕을 보장함으로서 그에 따른 보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국무회의가 대한민국 희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한국 제 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3. 안건1. 폐 군수공장을 TCA (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김상록 :

첫 안건은 폐 군수공장을 TCA 단지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서인 장관 :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의 장서인 장관입니다. 폐 군수공장을 TCA 단지로 재건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TCA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안건 발표 시작)

TCA는 Technology·Culture·Art의 약자로 기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뜻합니다. TCA 단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별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의 융합에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흘러가는 IT, 반도체 등 과학기술 업계에서 유지하고 있던 선두의 자리를 다른 국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본과 자원이 풍부하지도, 값싼 노동력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과거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돌이켜본다면 과학기술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강점을 접목시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은 바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땅입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실험의 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지 건설을 TCA 위한 부지 탐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통일한국이 취하고 있는 '발전만을 위한 발전이 아닌, 문제해결을 수반하는 발전' 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TCA 단지의 설립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는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폐 군수공장 단지입니다. 통일 이후 불필요해진 군수공장은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주변 지역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 군수공장의 부지를 TCA 단지로 재건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해진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폐 군수공장 부지에 TCA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TCA단지의 추진계획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TCA 단지로 재건할 폐 군수공장 단지, 즉 지역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치 선정은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고,현재 북한 지역 개발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TCA단지 내에 다양한 공간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TCA 단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위한 교육과 실험의 장, 개발과 생산의 장, 투자유치 및 판매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두들 맞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은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TCA 단지에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은 셀 수 없이 다양한 경우의 수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에 예술적인 디자인이 가미되는 것도 하나의 융합입니다. '예술적일 필요가 있나, 기능만충실하면 되지 않나?' 싶던 전형적인 모습의 가전제품들이 이제는 작품이라 불릴 만큼의 디자인적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예술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영상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고루한 것이라 여겨지던 연극이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관객들로 하여금 더 큰 희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 모든 것 이름만 대세요, 그 모든 것이 제 짝을 만나면 새로운 것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TCA 단지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실패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TCA 단지 내에서는 과학기술적 문화·예술적 역량을 지닌 그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바탕으로 실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눈에 띄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템은 TCA 밸류를 달아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TCA 단지 내부에서는 아이템의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TCA 전문 VC를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생산된 아이템은 TCA 스토어에서의 사전판매를 통해 대중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더 나은 아이템으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TCA 단지 안이 아닌 밖에서 진행된다면, 몇 년 이상의 긴 시간과 더불어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과 혁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TCA 단지 내에서라면 시간과 과정이 대폭 감소되고, 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CA 단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IT강국으로의 자리를 되찾음은 물론, 더 나아가 문화·예술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대통령 김상록 :

미래창조과학부의 안건 잘 들었습니다, '발전만을 위한 발전이 아닌, 문제해결을 수반하는 발전' 은 통일 이후 한반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빠르고 극적인 개발과 발전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남깁니다.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의 제언을 통해 본 안건이 더욱 온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은 자유로운 제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4. 교육부의 제언

TCA 단지 내에 실용성을 강조한 예술학교 설립의 필요성

교육부 안소영 장관 :

교육부의 안소영 장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안건을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교육부의 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키워드 중심의 PPT)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던 시대에서 집단의 역량이 강화되는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융합의 도구로서 제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TCA 단지 조성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술교육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이미 다

문화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겪은 선진국들은 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TCA단지 내에는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와 같은 예술학교의 설립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세계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최초의 현대 미술학교 입니다. 바우하우스가 현재까지도 인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장르간 융합 교육과 실험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수예술보다는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 목표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TCA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의도와 비슷하게, 바우하우스가 설립된 곳 역시 독일의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우하우스는 도시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바우하우스의 선례에서 착안하여 교육부는 TCA단지 내의 교육이 실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국가 성장에 주력하기 위함입니다. TCA단지 내에서의 교육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디자인적, 미적 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GDP(국내총생산)와 고용창출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해 얻어진 경제적 효과는 문화 산업 등 여타 산업의 콘텐츠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입니다.

TCA단지 내에 전문학교가 설립된다면 1+2+1 과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2+1은 교육부가 새로이 착안한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1년은 TCA단지 내에서 탐색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세부전공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의 시민학교 개념과 유사합니다. 대학 진학 전의 학생들이 1년간의 갭이어(Gap Year)를 가지면서 자신이 선택한 교육기관에서 적성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탐구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다음의 2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실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마지막 1년은 TCA단지 내에서의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여, 2년의 교육을 통해 습득한 것을 실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1+2+1 전체를 이수하여 4년제 학위를 따거나, 2년간의 정규 교육과정만을 수강하여 2년제 학위로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2+1 과정은 학생들의 자유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제도로 TCA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인간의 존재성을 현재화 하고 형성해가는 과정인 교육을 통해, 남북한 청년들이 존재감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첫 단추로 통일 한국의 정서와 환경에 맞는 교육환경이 TCA단지 내에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형태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의 제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TCA단지 내에 조성될 학교와 그 교육이 실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TCA단지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해할 것입니다.

교육부 안소영 장관 :

실용성 중심의 교육은 당장 통일 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르네상스시대와 같이 순수예술을 발전시킬 때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예술의 실용적인 융합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창출해야할 때 입니다. 장관님께서 현 상황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적)

대통령 김상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S#5.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언

TCA단지의 관광적 가치와 지향점

문화체육관광부 김형태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이 TCA단지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키워드 중심의 PPT)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김형태 장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웅성웅성) 대부분 유럽 혹은 미국의 예술 거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북경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 북경 조양구 따산즈에 위치한 798 예술구 입니다. 북경 798 예술구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시작하여 지역적, 경제적, 관광적 측면에서 지난 15년간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갤러리, 예술가 스튜디오, 디자인 샵, 공연, 이벤트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공간 및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국영 798 공장을 비롯해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 공장이 밀집된 공장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1950년 대 말부터 무기 공장이 하나씩 철수하였고, 1996년부터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들어와 살기 시작해 현재의 예술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798 예술구는 2003년 미국 주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도 시예술센터 TOP 22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98 예술구가 10년이 채 되지않는 짧은 시간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술가들에게 주여진 자율성 때문입니다. 텅비고 칙칙한 공장단지는 예술가들에게 여러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고, 그들은 짧은 시간안에 거리를 물들이고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만약 국가가 나서서 798 예술구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려 했다면 지금과 같은 활성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공장 벽을 채우게된 다양한 그래피티의 실용성을 따진다면 예상되는 그 가치는 화려한 벽화에 지나지 않지만, 이 그래피티들은 수년 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피티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공유를 하면 굳이 돈을 들이지않아도 798 예술구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과감한 시도는 798 예술구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를 하나의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CA단지를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의 공간으로 열어두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TCA단지를 바라본다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그치는 공간이 아닌 평화통일과 남북한의 조화의 상징으로, 통일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성을 강조하여 고리타분한 교육 및 연구단지가 되기를 선택하기 보다,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간섭과 규제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육부에서 말씀해주신 TCA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그 필요는 인정하나, 정부는 TCA단지의 새로운 융합교육에 집중하기 보다, 기존의 교육기관들과 연계하여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중국 최대 미술 대학교인 중앙미술학원도 798 예술구의 가능성을 보고 학생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자 둥청구에서 798 예술구의 소재지인 따산즈로 캠퍼스를 이전하였습니다. TCA단지가 제대로만 조성된다면, 활기를 불어넣어줄 개인,기관,기업 등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TCA단지에 기대하는 가치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공간을 넘어 통일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국제적 관심을 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TCA단지는 대한민국이 분단 끝에 화합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공간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그치기에는 TCA단지가 갖고있는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과거 평화를 위협하던 북한 정권의 군수공장을 과학과 문화·예술 단지로 재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입니까? 열악한 공장 시설에서 무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통일 후에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TCA는 평화와 기적의 공간으로 아직 평화가 도래하지 않은 국가에는 희망을, 전세계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TCA공간의 문을 열어 사람들이 드나들도록 한다면 이 소중한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TCA단지의 관광지 측면에서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한국의 랜드마크로, 모든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대통령 김상록 :

TCA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인 '통일한국 랜드마크화'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언 감사드립니다.

TCA단지가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 입니다. 평화 통일의 상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된다는 사실은 TCA단지가 지니는 호소력이 될 것

입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언으로 TCA단지의 필요와 그 가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제언은 폐 군수공장을 TCA단지로 재건하는 것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언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6. 국토교통부의 제언

TCA단지의 산업 유산적 가치와 위치 선정

국토교통부 박종훈 장관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박종훈 장관입니다. 산업시설의 지역재생의 측면에서 TCA단지의유용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위치 선정 및 단지 설계에 대한 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키워드 중심의 PPT)

역사적으로 산업 문명의 발전은 인류 문명의 역사 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까지거대한 규모와 역량을 자랑하며 인류의 삶과 역사 문화에 길이 남을 수 많은 흔적들을 남겨왔으며, 인류의 지혜와 잠재 능력의 발전 과정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기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통 산업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으며, 그 자리를 첨단 산업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시설물들과 전통 산업이 차지하던 대량의 공장과 시설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서 우범지대와 같은 도시의 문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면서 낙후된 산업시설 즉 산업유산을 지역재생의 새로운 매개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유산이 가진 잠재력 때문입니다.

첫째 산업유산은 '다층성' 을 지닙니다. 산업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번성했던 지역산업과 맥을 같이 하며지역민의 생활양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니고 있습니다. 폐 군수공장은 전달매개체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 북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활용성'입니다. 산업유산은 어느 정도 과감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이거나 비 문화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 군수공장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며, 산업시설의 거친 인공미와 세련된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춘 공간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TCA단지가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재생성'입니다. 산업유산은 기능이 쇠퇴된 후 버려진 땅을 칭하는 브라운 필즈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상당 수의 군수공장들은 지리적으로 유의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낙후되고 소외의 대상인 옛 산업지대에 불가하지만, 이러한 공간을 기회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CA단지가 지니고 있는 다층성,활용성,재생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평안남도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잠진리에 위치한 폐 군수공장이 TCA단지 건설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잠진군수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평양의 남서부 남포시는 남쪽에 대동강이 위치하고 있어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포항이 존재하여 물자의 수송도 용이합니다. 관광적 측면에서는 와우도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의 관광시설이 같은 남포시 내에 존재하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둘째, 잠진군수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미사일 제작 시설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된 커드 미사일을 제작하던 곳 입니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시발점인 잠진군수공장을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TCA단지로 재건한다는 것에는 큰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잠진군수공장은 가장 현대적인 설비와 기술을 지니고 있던 공장입니다. 노후하여 안전 위험이 존재하던 기타 군수공장과 다르게, 북한 군사의 핵심에 존재하던 잠진군수공장은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조립공장을 4 채, 엔진실험장 건물을 6 채를 추가로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하고 추가로 건설하여 단지를 확장한다면 TCA단지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서인 장관 :

국토부교통부 장관님의 제언 감사드립니다. TCA단지 위치 선정에 있어 잠진군수공장의 지리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한가지 질문이라면, 현재 잠진군수공장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종훈 장관 :

현재 잠진군수공장 주변에 특별한 개발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산과 지형을 고려하면 최대 40만 제곱미터, 즉 120,000평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서인 장관 :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종훈 장관 :

잠진군수공장을 TCA단지로 재건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의 제언을 마칩니다.

대통령 김상록 :

국토교통부의 제언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제언이 있겠습니다.

S#7. 기획재정부의 제언

한반도의 경제 상황 보고와 폐 군수공장 재건에 대한 의문

기획재정부 한아형 장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의 한아형 장관입니다. 현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함으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구규모는 남한 지역이 2배 많고, 통일 직전 년도의 명목상 국민총소득(GNI)은 약 1,497조원 대 34조원으로 약 43.8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1인당 총소득도 2,968만원 대 139만원으로 약 21.4배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지역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지향점입니다. 과거 남한의 기획재정부는 독일 연방재무부와 2014년부터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물들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사유화, 경영정상화 과정을 예측하고 향후 통일 대비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통일이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통일 이후의 남북한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과거의 연구 결과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체제의 붕괴와 인플레의 발생으로 빈곤계층이 급증하였습니다.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그 다음 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인구가 크게 이동하는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인구 유입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며, 동시에 북한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와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지역의 자생력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바지 할 본 안건의 지향점에 기획재정부는 지지를 보내는 바 입니다.

다만, TCA단지를 폐 군수공장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TCA단지 자체는 통일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 군수공장에 재건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보기 좋은 포장지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TCA단지 그 자체로 승부를 볼 수 있다면, 무리해서 폐 군수공장을 재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보수하고 재건하는 것이 더 어렵고 때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여기 모두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마련되어 있던 통일비용과 세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는 통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게 된 그리고 앞으로 더욱 부담하게될 비용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폐 군수공장에 TCA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공장

의 처리와 TCA단지의 재건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될지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본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폐 군수공장에 TCA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뿐,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가능성 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몇 곱절이 더욱 크다는 점, 그리고 그로인해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창의적이고 현 시대에 필요한 안건임에도 국가의 재정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김상록 :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보다 현실적인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본 국무회의의 목표는 각 부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시각을 공유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각 부처의 제언을 통해 안건이 풍성해지고, 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적해주신 현재의 국가 상황에서 폐 군수공장에 TCA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투자일지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언이 있겠습니다.

S#8. 고용노동부의 제언

통일 한국의 고용노동 현 상황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TCA단지 지지

고용노동부 허종윤 장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의 허종윤 장관입니다. 폐 군수공장에 TCA단지를 재건하는 것에 대한 각 부처의 다양한 제언을 잘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통일한국의 고용노동시장이 처한 문제에 대한 사실보고와 본 안건에 대한 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위주의 PPT)

현재 한반도의 실업률은 통일 직전 년도보다 약 2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산업시설의 작동 중단과 더불어 체제전환기적 대량실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계획을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지역에 고용창출계획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적인 고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노동자들은 개발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근무환경도 남한에 비해서 현저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회보장제도도 국민의 안녕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남한 지역으로의 이주하는 현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 출신 이주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 가능성을 가지겠는가 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북한 출신 주민들은 남한에서 소외받는 빈곤계층이 되거나,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임금, 단순, 계약직 노동에 주요 공급원으로 불공평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임금 및 고용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노동격차는 몇 년 안에 극심한 빈부격차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통일 후 북한 인구의 이주를 강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북한 주민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가 더욱 활발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안건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본 안건에 동의하는 이유로 첫째,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는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역 주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는 바로 제대로된 교육의 부재로, 남한 지역 주민들과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넘어야할 장벽도 높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지역 주민들은 저임금의 단순노동에만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문화와 예술은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창의력

과 개성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장기간 북한 체제 유지의 도구로 쓰여져 발전이 없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예술적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억제되어 있던 자유가 분출이 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TCA단지 내에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모두가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현실 극복의 기회입니다.

둘째, TCA단지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TCA단지의 활성화로 그 주변 지역의 발달 또한 진행된다면 그만큼의 일자리도 증가하는 것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TCA단지 내에서 창출 가능한 일자리를 파악하고, 그러한 일자리를 어떠한 대상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각 계층과 대상 별 고용에 대한 필요와 수준을 조사하여, 사회통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S#9. 정책의결 및 결정

대통령 김상록 :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제언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발언을 끝으로 오늘의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마지막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서인 장관 :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진행해주신 제언으로 인해 오늘의 안건이 더욱 공고하게 다져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김상록 :

자, 그럼. 통일 한국 제20회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무위원께서는 진행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후 스크린에 투표 결과가 나타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의한 '폐 군수공장을 TCA단지로 재건' 하는 안건은 찬성 5명과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S#10. 폐회 선언

대통령 김상록 :

오늘의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인 TCA단지의 건설이 각 부처의 제언에 따라 더욱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TCA단지가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담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공간으로, 한국적이지만 국제적인, 과거의 폐 군수공장이 주는 시사점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TCA단지와 같이 통일한국의 미래도, 협력과 융합 그리고 혁신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되길 빌며, 모든 국무위원님과 유관부처가 '폐 군수공장을 TCA단지로 재건' 이라는 본 안건의 집행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통일한국 제20회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폐 군수공장을 TCA (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 추진 배경

1. 통일한국의 최대 경쟁력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발전하는 공간의 부재
가. 예술과 과학기술 기반이 튼튼할 때 문화융합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나. 문화예술이 주로 사회체제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 과거 북한 예술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 국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

2. 평화통일로 인해 문을 닫게된 폐 군사시설 처리의 문제
가. 대규모 군수공장이 국민들에게 주는 위협감이 크다.
나. 폐장하는 데에 많은 노동과 예산이 지출된다.

3. 통일한국의 기술·문화·예술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
가. 70여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각 분야에 존재한다.
나.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사회 간의 격차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한다.

4. 부족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
가. 통일 이후 체제전환기적 대량실업의 대안이 필요하다.
나. 북한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임금,단순,계약직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5. 남한과 북한 청년들의 부족한 교류의 기회
가. 공통분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남북한 청년들의 불협을 해소해야 한다.
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들이 통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TCA단지 추진 계획 및 역할

1. 폐 군수공장을 TCA 단지로 재건설한다.
기존의 형태를 보존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

2. TCA 단지 내에 다양한 공간을 창조한다.
모든 것이 TCA단지 내에서 진행됨으로 경제·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위한 교육과 실험의 장, 개발과 생산의 장, 투자유치 및 판매의 장으로의 TCA단지

<TCA 단지의 역할 >

교육	실험	개발	생산	전시 및 판매
과학기술 혹은 예술적 재능을 지닌 인재를 대상으로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공간을 마련한다.		기술자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TCA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공장을 마련하여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결과물을 생산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결과물을 대중에게 전시할 공간 마련 투자유치에 성공한 상품을 TCA스토어에서 판매한다.

◆ 기대 효과

국가 발전의 측면

1. 통일한국이 TCA 단지를 통해 지니게되는 문화·예술경쟁력과 기술융합에 의한 창의경쟁력은 독보적일 것이다.
2.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통일한국은 IT산업의 첨단정보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다.
3. 잠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으로 발돋움 시킨다.
4.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의 보다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

1. 불필요하게된 폐 군수공장을 폐장하지 않고 공간 재활용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 TCA단지 운영에는 많은 인력이 요해짐으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북한 지역 주민들의 남한 지역으로의 대량 이주를 해결한다.
4. 통일한국의 랜드마크로서의 TCA단지는 많은 해외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국민의 측면

1. 문화예술이 융성하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정열을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2. 대규모 군사시설·군수공장이 주는 반감이 해소되는 동시에, TCA단지는 평화통일의 상징이 될 것이다.
3. TCA단지를 통해 조화를 되찾는 남북한의 문화예술은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4.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 참고사항 유관부처 토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통일한국만의 고유한 원동력으로 발전시킨다. 나. 폐 군수공장의 부지를 TCA 단지로 재건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다. TCA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과 과정을 감소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가. TCA단지 내에 독일의 바우하우스 (Bauhaus) 와 같은 예술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나. 기존의 4년제 교육과정이 아닌, 1+2+1 과정이 적합할 것이다. 다. 교육을 통해 순수 예술 보다는 실용적인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당장의 국가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TCA단지는 관광단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나. 중국의 798예술단지 또한 군수공장을 개조한 것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성공적이라고 판단받고 있다. 다. TCA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가. TCA 단지는 산업유산의 다층성,활용성,재생성을 바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 가장 적합한 군수공장 부지는 평안남도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잠진리에 위치한 잠진군수공장이다. 다. 개발 가능한 면적은 40만 제곱미터, 즉 120,000평이다.
기획재정부	가. 남북한 지역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나. TCA단지를 폐 군수공장에 건설하는 것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 본 안건이 실패할 경우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가. 한반도의 실업률은 통일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남북한 지역 주민들의 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다. TCA단지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 대본 샘플 2 (제 3회 우수상 팀의 예)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 본

- 토론 안건 : Higher Korea Project!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한울 / 윤태빈

<안건> Higher Korea Project!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

S#1. 개회 선언 및 대통령 모두발언

대통령 송영식 :

19명 구성원 중 10명이 출석으로 개의조건인 2분의 1이 충족하였으므로 지금 제 22회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국무총리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부재중이므로, 국방부장관께서 대신 국민의례를 진행해주십시오.

국방부 최운혁 장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송영식 :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한반도 통일을 이룬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고 분단국가에서 평화국가로서 발돋움해 나아갈 우리 통일 대한민국에 국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루어질 통일 1주년 기념 세계통일평화박람회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큰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염원하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국무위원 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격차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어쩌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벌어져 있어 한반도 전체의 온전한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명 코리안 드림을 품고 그동안 시달리던 고질적인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통일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대량 남하로 인해 경기도 일대에 인구과밀화 현상이 생겨 주민들의

거주 문제와 급증한 범죄율로 인한 치안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 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 국민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완벽한 대통합을 위하여 국민들 간의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과 기존 북한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국민들의 교육에 더욱 노력야 할 것입니다.

통일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반도 북부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또다른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역 개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또한, 북한 지역 개발은 통일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여러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에너지 허브 및 새로운 세계경제선진국으로서 도약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께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님으로부터 평안북도 개발에 관한 내용을 대면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 원대한 사업 기획서를 보고 북부 지역의 개발과 이를 통한 남북 간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분열되어 약해져 있었기에 그 필요성을 통감하면서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었지만, 통일이 되어 민족과 국력이 하나가 된 지금이야 말로 자원강국, 첨단산업강국, 우주강국 통일대한민국으로 가는 위대한 장정을 시작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른 부처장관님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싶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 장관님, 안건 발표해주십시오!

S#2 국무회의 안건: Higher Korea Project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안건 제시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평안도 지역에서 정주지역의 희토류 광산을 개발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산업 및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는, 'Higher Korea Project'를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남북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얻어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희토류 매장량입니다. 희토류는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산업, 우주산업,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Higher Korea Project는 크게 정주의 광산단지와 염주군의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동창리의 김담우주과학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풍부한 희토류 매장량을 가진 평안북도 정주시 일대의 광맥을 개발하여 광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광물의 채취뿐만 아닌 그 광물의 정제 및 2차 가공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할 것입니다. 정주시 개발은 희토류 광맥 탐사 기술 확보 및 광산 개발을 통한 1단계 건설과 광물 가공 및 정제를 위한 배후 산업 단지 구축을 통한 2단계 건설, 두 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염주군 일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희토류는 우주 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다양한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3D프린터, 휴대전화,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만큼 관련 직종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에서는 창업에 대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을 지원하는 HIGS(Hi-tech Industry with Government Support)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주산업 개발, 김책공대의 이전 등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ICT산업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큰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는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동창리 일대를 과거 조선시대 대한민국의 천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김담'의 이름을 따 김담우주과학단지로 지정하고,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통일 이전, 남한과 북한이 각각 보유한 인공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합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우주경쟁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6년 미국과 한미우주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NASA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지속적인 R&D 교류와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넘어 달 탐사선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우주 산업의 개발은 대한민국을 미래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주시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활용해 기존의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고, 인공위성 및 무인기 기술 등을 점진적으로 이전시켜 동창리의 항공우주기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우주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자원이라는 점에서 정주시와의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스타시티'를 벤치마킹해 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한국형 우주국제타운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계획 구상중입니다.

저희 미래부는, Higher Korea project를 통해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긍심 또한 고양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미래부 장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대통령님과 다른 부처의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S#3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장관 제언

고용노동부 제민수 장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제민수 장관입니다. 저는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중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은 그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 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극심한 실업 문제는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한반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북한 지역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의 실업률은 실질 취업연령대인 20~59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최소 25%에서 최대 56%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남한 지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생산 기술이 우리보다 30년 정도 늦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이 일용 노동직, 3D 업종과 같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한 지역으로 떠나온 상태에서 통일 직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아직 조정되지 못한 남북한의 물가 차이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보건 등 많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북한 지역 주민의 격차는 경제적 양극화 및 계급화,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혐오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북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남한의 기업들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게 하여 단순노무직 이상의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Higher Korea project를 실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도로, 철도, 공항, 전력, 통신 등 다양한 SOC 건설을 비롯하여 항공 우주, 과학 기술 산업 연구 단지 및 배후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건설 사업을 통해 최대 20년간 연간 5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생산 기술이 낮은 북한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남한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도 북한 지역으로의 진출 및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급 생산기술을 보유한 남한 지역 기업의 진출을 통해 북한 노동자의 기술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로 하여금 단순노무직 이상의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는 남한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 간의 직업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적 양극화 및 계급화를 해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단순 노무직에 대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해있는 해외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부지 제공 및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남한 지역의 기업들로 하여금 북한 지역으로의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는 지역 주민들로 Higher Korea project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생활수준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하는 일 없이 북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지금의 북한 지역 실업 문제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Higher Korea

project에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윤태빈 장관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윤태빈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일 후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교통로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 북한에 노후 된 채 방치된 철도를 보수하고 서울과 평양 그리고 평안도를 지나 신의주까지 이어서 향후 대륙철도와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종단철도 사업을 진행하는 등 남한과 북한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체의 부재로 인해 지역 간 균형 개발 속도가더뎌 실직적인 성과는 많이 미흡한 것이 실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Higher Korea project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의 거점 지역으로 언급된 동창리, 염주, 정주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교통의 중심인 평의선을 지난다는 점에서 국토교통 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강연준 장관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장관 강연준입니다. 저희 교육부는 Higher Korea project에 적극 동의합니다. Higher Korea project가 성공한다면 평안북도는 향후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능을 할 역량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김담우주과학산업단지에 김담과학기술대학교,KDIST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KDIST는 서울대, KAIST, 김책공대와 연대하여 김담우주과학산업단지 및 염주첨단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며, 첨단 과학 기술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는 최일선 연구단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KDIST의 설립은 이후 설명드릴 첨단산업단지 유치 사업에 있어서도 고급 인력 확보의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들의 인턴 기회 및 연구지원을 진행하면서 주변 산업단지들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빠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S#4 동창리 vs 무수단 (동창리 지역선정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최운혁 장관 :

국방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된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방부 자체적으로 통일한국의 항공작전의 요충지로 여러 지역을 고려한 결과 동창리 발사 기지를 통일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및 공군기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가장 효용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창리 발사 기지는 지리적, 군사적, 전략적으로 최적의 발사기지로 평가되고 과거 북한에서도 미사일 발사기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가장 최신의 미사일 발사기지로 국방부에서는 이곳을 항공우주 작전, 미사일 방어, 전자전,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생각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동창리지역을 우리 군의 항공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군사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효용이 크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Higher Korea project의 후보지를 무수단리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 드립니다. 이 지역 역시 발사기지가 존재하고 함경도 지역에도 다량의 희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군다나 함흥에는 전 세계에 몇 곳 없는 희토류 제련소까지 갖추고 있으니 오히려 저는 이곳이 더 타당성 있는 후보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반도 북서지역에 공군 거점기지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적으로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창리 지역과 비슷한 제반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 요소가 없는 무수단리 지역에서 Higher Korea project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 윤태빈 장관 :

국방부 최운혁 장관님의 의견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먼저 동창리 부근을 군사기지로 사용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있어서 안보 방면으로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중국과의 교류에 문제가 생겨 향후 대한민국에 커다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수단리 일대는 산악지대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는 통일 이후 최대의 교통사업인 제 1호 고속도로인 통일선을 곧 개통할 예정에 있으므로 서울, 평양의 산업 연구단지와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수단 주변은 산악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기대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수단 지역보다는 접근하기 용이하고 평야지대가 있는 동창리 부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강연준 장관 :

교육부장관 강연준입니다. 저 역시 국토교통부 윤태빈 장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KDIST가 김담 우주과학 단지와 염주군의 첨단도시와 함께 위치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국방부 최운혁 장관 :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시 무수단 KDIST 근처로 이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 강연준 장관 :

국방부 최운혁 장관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KDIST의 설립 취지를 생각 할 때 무수단 보다는 염주군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KDIST는 우주항공공학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자 통일 한국시대의 첫 번째 교육기관입니다. 앞으로의 KDIST의 명성과 상징성을 생각 할 때, 또 KDIST가 한국 우주 산업에서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계획한 부지는 평야지역이 많은 염주군이 산악지역이 많은 무수단보다 더 타당해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 :

미래부도 국방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제까지의 논의 및 각 부처 장관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Higher Korea project는 교통이 불편한 산악지대인 무수단리 보다는 평야지대이며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평안북도 동창리에 건설되어야 효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최운혁 장관 :

본 장관은 교육부, 미래부 장관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점점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창리 지역을 한반도 북서쪽의 항공우주군사작전 거점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적으로 더 효용이 크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외교부 박정문 장관 :

동창리를 군사용 목적으로 유지할 경우,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워 중국의 반발이예상됩니다. 통일 전 북한이 중국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창리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북한은 중국의 우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구역 내에 있는 한 미 양국이 중국의 동의 없이는 이 구역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된 지금 중국은 더 이상 통일 한국을 무조건적인 자신의 우방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이해관계가 바뀐 현 시점에서 군사기지를 동창리에 둔다면 중국은 오히려 베이징과 가깝다는 이유로 더 경계하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상징적으로도 동창리는 김정은의 지시로 건설되고 완공된 곳입니다. 통일한국이 되어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과거 북한 선군체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를주 군사적 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박윤지 장관 :

저희 기획재정부는 앞서 말씀하신 교육부 , 외교부, 국토해양부와 마찬가지로 무수단보다는 동창리에 우주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예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창리는 통일 전부터 군사적요충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동창리는 무수단리 보다 최근에 설치된 발사대이기 때문에 무수단리에 비해 더 크고 정교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북한정부는 인공위성이나 로켓발사에 필요한 물품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등 기반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 시설은 항공 우주 산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이며, 또한 외교부 장관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오히려 군사기지로 사용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잘 형성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첨단 우주 과학 발사대로 사용하는 것이 추가 비용도 적게 들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재부는 김담특별시 건설의 산업에 대한 비용이 우려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통일 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금 정부가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만큼 우주산업에만 집중해 막대한 투자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통일 전 남한에서 인공위성 개발비만 2891억원이 들어간 것과 2017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설립했을 때 든 비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현 예산으로는 김담특별시 우주산업에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 예산으로는 우주산업개발이 턱 없이 부족하기에 외부 투자가 절실합니다.

대통령 송영식 :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판단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남북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재원의 조달을 통한 방안과 현재 예산에서 국정의 중요성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동창리 단지 계획은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S#5. 타협하는 국방부 최운혁 장관

국방부 최운혁 장관 :

북한지역에 항공작전 및 공군전력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동창리 지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우주과학산업단지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점이 있고, 더 나아가 통일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 하시는 바 국방부는 국정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는 북한지역 특히,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북서지역에 항공작전을 책임질 전략공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작전용 군사기지의 건설은 통일 대한민국의 자주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님의 말씀대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안도 내륙에 위치한 곳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송영식 :

그렇다면 국방부 최운혁 장관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 최운혁 장관 :

저희 국방부에서는 동창리에 대한 대안으로 평안북도 개천시를 북한지역 항공작전 및 공군전력의 새로운 요충지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천시는 동창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해 있어 중국과 거리가 있으며 기존의 '북한 인민군 제1항공사단'이 위치해있던 곳입니다. 개천시를 북한지역의 항공우주작전 및 공군전력의 요충지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김담시와 멀지 않는 만큼 국방부 역시 한국국방 고등기술원(I-DATe)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요대학, 기업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군겸용기술, 항공우주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 국방부의 '우주 정보 공유 합의서' 확대 개편하여 미국과의 우주 정보 공유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6. 염주 첨단산업단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개발 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 :

국토교통부와 협의 한 결과, 염주 첨단 산업단지는 향후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염주군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평의선과, 염주를 중심으로 룡천, 피현, 동림, 철산 등 여러 지방과 통하는 교통요충지 입니다.

또한 염주시는 330km^2 중 절반이 넘는 168km^{2}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데 용이해 보입니다.

염주 첨단 산업 단지는 네 가지 테마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첨단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벤처파크, 연구소가 입주하는 리서치 파크, 산학연 협력센터로 구성된 리서치 코어, KDIST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위치한 교육 타운으로 형성 될 예정입니다. 염주군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The Higher Korea Project 첨단 산업 단지"계획에 부합하게 대기업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발전 유치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전 북한의 연구소인 북한국가과학원의 종사하는 연구원과 인재 양성 기지로 있는 리과 대학의 학생들을 리서치 코어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전 북에 주거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주최 할 것입니다. 세미나와 포럼을 들은 청년들이 창업을 원할 경우 최소존속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구축까지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제조업 공단에 통일 이전 북주거민 쿼터를 설정해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의 창구 삼고, 향후 남북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교육부 강연준 장관 :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염주군 일대에 들어올 첨단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평안북도 곳곳에 4차 산업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것 입니다. 특성화 학교에서는 3D프린터, 휴대전화, 배터리, 전기자동차, 로봇 공학, 사물인터넷 등 교과과정을 제공 할 것 입니다. 특성화 고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첨단 산업단지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S#7. 산업통상자원부 제언 및 정주시 희토류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산자부입니다. 자원 적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통일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 원석의 양은 약 2억1천6백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희토류는 북쪽의 4대 광산에 밀집되어 있어 채굴비용이 경제적이고 원석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류의 양도 중국의 원석보다 4배가량 함유량이 높습니다. 채굴된 희토류의 사용 또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항공우주산업과 첨단산업 등에서 유용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함으로써 희토류의 시장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 희토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할 전망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희토류 수요의 증가량은 12.5%으로 2016년의 총 수요량은 245,000톤 입니다. 이런 전망을 예측하여 미국 에너지부는 첨단산업의 개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자원 협력개발 사업을 통해 중국의 자원 전략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는 특정 희토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특성상 한 가지 희토류의 공급 증가는 다른 희토류의 공급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굴사업을 통해 통일대한민국은 자원생산에 있어서 자주성을 지킬 수 있고 내수시장의 확대는 물론 국내회사들이 보다 낮은 생산가격으로 세계시장에 비교우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첨단산업에서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일본에서 중간소재를 수입하고 있어 낮은 제조가격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진행 중 우주사업은 국가가 추진하고 하도급 사업은 국내의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자원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로운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주의 희토류 개발 사업은 통일한국의 희토류 공급을 자급자족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필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박대수 장관 :

환경부에서는 북한 정주시의 희토류 광산 개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물론 희토류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희토류 개발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가져옵니다. 통계적으로도 러시아는, 미국은, 호주는 중국에 못지않은 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률이 0퍼센트이며,일례로 미국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산이였던 마운틴 패스 광산이 방사능 폐수 유출 사건으로 폐쇄되었는데, 모하비 사막에 방출 된 폐수를 정화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중국 최대의 희토류 광산인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 시에는 폐수 저장용 인공호수인 웨이광바에 45년 간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이 축적된 결과 현재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으며 현재 타지역에 비해 36.6배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방사능 수치를 자랑하며 그 시의 노동자들은 현재 납, 수은, 벤젠 중독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준 장관 :

(손을 번쩍 들며) 환경부 박대수 장관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제시하신 마운틴 패스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광산들은 광맥이 외부노출 때문에 폐석이 강우 등 기상환경에 의해 유출되어 주변환경 파괴의 주범이었던 것은 확실 합니다. 하지만 산자부에서는 ISL (in situ leaching) 공법을 제시 합니다. 이 공법은 외부에 광맥 노출이 없는 추출 공법입니다. ISL의 원리는 원광이 매장되어 있는 위치 지면에 구멍을 뚫어 탄산염과 황산 등 용액을 넣어 원광을 희석하고, 원광이 녹아있는 용액을 원유추출방식과 비슷하게 추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폐석가루가 생기지 않고 외부 노출도 없어 각종 기상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이 우려하는 방사능 폐석가루가 생기지 않아 주변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론적인 위험은 ISL공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한 요소 입니다.

환경부 박대수 장관 :

네 산자부 김정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하지만 ISL 공법은 우라늄 추출에만 적용되던 공법으로 희토류 추출에 사용된 전례가 없어 그 실용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용 기간조차 짧기 때문에 여러 잠재적 환경오염 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ISL 공법의 경우 화학용액이 섞인 액체를 광맥에 흘려보내 원광을 녹여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확실히 폐석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광맥에 잔류하는 용액으로 인한 인근 지반의 심각한 오염이 예상됩니다. 또한 폐수의 처리 또한 문제입니다. 비록 방류 전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폐수 속의 유해물질 양을 일정 수치 이하로 낮출 수만 있을 뿐 모든 유해물질을 완벽히 걸러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이로 인해 자연 속에 방류된 물질들이 어떤 이유로 다시 뭉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이는 희토류 개발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준 장관 :

환경부 박대수 장관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 또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ISL 공법은 노천채광과 심부채광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입니다. 우선, 원광추출을 위해 뚫은 구멍의 남은 산과 염기 물질마저 회수가 가능하여 지하수 오염 문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ISL 공법을 사용했을 시, 폐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원광의 정제를 끝내면 폐수 속에는 화학용액과 광미가 혼합된 형태로 산출 됩니다. 이 액체에서 광미와 화학용액을 최대한 분리합니다. 분리된 화학 용액과 광미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선광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미를 다시 정제함으로써, 회수율을 증가시키고 잔류하는 방사능 물질의 함유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폐수처리 공법을 적용한 후에도 잔류하는 폐수는 Sorbx공법으로 보완할 수있습니다. Sorbx 오염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95%에 가까운 오염물질 제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ISL 공법과 Sorbx 공법 등 최신 공법들을 이용하면 환경부 장관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민수 장관 :

고용노동부는 광물 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주 지역의 희토류 광산 개발뿐만 아니라 나아가 북한 지역 전반의 광물 자원 개발에 찬성합니다. 정주 지역의 희토류 광산 개발은 그 개발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희토류 만톤에 대해서 전면 개발을 실시 할 경우 연간 3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할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통일 이전까지 북한 지역의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산업은 광공업 및 광업으로 그 비율이 31%에 이르는데 기존의 북한 지역주민 중에서 광공업 종사 경력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 광산 개발 과정에서 그 이점을 통한 항공우주, 첨단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 및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환경부 박대수 장관 :

(한숨을 쉬며) 네, 여러 장관님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며 저희 환경부에서도 희토류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희토류 개발은 상당한 환경 파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감사와 감시를 통해 희토류 개발로 인한 오염문제 발생

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는 이전에 개발된 노후 희토류 광산들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부는 산자부와 연계하여 이 노후광산들에 잔류된 광미처리 문제와 노후 광산들의 친환경적 폐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여러장관들의 동의 및 협력 방안논의)

국토교통부 윤태빈 장관 :

국토교통부 또한 산자부 김정준 장관님 제언에 동의하는 바이며, 환경부 장관님과의 협의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국토교통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 회의에 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 :

본인 또한 국토교통부 윤태빈 장관님의 같은 입장입니다.

S#8. 희토류 생산협력 국가 논의 및 선정

대통령 송영식 :

희토류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다른 광물을 개발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시장의 자율성에 맡길 수 없는 광물입니다. 또한 희토류는개발 예정인 염주주군의 첨단산업단지와 김담우주과학단지의 성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저는 희토류 자원 개발권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필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준 장관 :

고용노동부 제민수 장관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통일 대한민국은 광산산업에 전문화된 인력은 있습니다. 다만 희토류 관련 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채광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제안하는 바는 기술력이 발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희토류 산업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희토류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미국과 협력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중국이 희토류 채굴을 진행하는 선두주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광산들은 보편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원자재 수출 사업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운트 패스의 폐광 이후 새로운 기술력으로 채광에 도전하는 미국의 기업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광물 회사는 2002년의 폐광된 마운트 패스 광산을 다시 개장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법들을 연구 해왔습니다. 제련 공정에서는 새로운 분리법을 개발하여 부유법 (floatation) 이 아닌 Liquid Membrane Emulsion법 을 사용하여 스칸디움의 경우 회수율을 98%까지 증가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적용 연구중입니다. 또한 전력 사용의 측면에서 국제표준화 기구가 효율성을 인정한 Caterpillar사의 C계열 모델과 Cummins사의 QSB계열 디젤 엔진을 채굴에 접목해 전력사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미국의 기업들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력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단순한 채광 관련 기술 뿐만 아니라 희토류에 대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 공법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하도급 식을 띄는 사업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사업체는 대형 광물 회사에서 하청을 받는 형태로 지질 탐사 및 분석 연구를 하며, 양질의 연구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대형 광물회사와 파트너쉽을 형성 합니다. 대형 광물 회사들은 채굴, 하도급 업체들은 지질 연구와 탐사의 전문성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식을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 :

산업통상부 김정준 장관님의 말씀대로 미국이 희토류 채광 및 관련 지질탐사 개발권을 일부 가질시 자원 개발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율성이 통일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편익을 가져올 수있느냐 입니다. 따라서 저희 미래창조과학부는 희토류개발 산업에서 일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전 한국은 희토류 자체를 수입한다기 보단 일본에서 2차 가공된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따라 일본의 2차 가공된 희토류의 가격 및 양이 심하게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주시의 희토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희토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일한국의 막대한 희토류를 바탕으로 일본의 2차 가공 기업을 정주시에 입주시킴으로써 일본기업의 2차 가공된 희토류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차 가공된 희토류를 자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체들에 큰 편익을 가

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 첨단산업체들의 발전은 염주산업단지의 기업들과 스타트업 산업체들의 진흥을 야기 할 것입니다.

외교부 박정문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준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추가로 더 설명 드리자면 통일 전 대한민국은 중국보다는 가격이 비싸나 미국보다는 기술의 질이 떨어져 첨단산업발전 이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만약 산업통상부 장관님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이 채광산업을 맡고 일본이 2차가공을 바로 진행하여 김담및 염주 단지의 기업들과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한국의 첨단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 박윤지 장관 :

(말을 끊으며)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토류 개발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외교부 장관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너무 이상적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통일 전 북한은 광산개발을 81%이상 중국과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통일되었다고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승계를 하든 재협상 을 하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따로 협상하며 새로 기업을 입찰하고 입주시키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중국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협상 조항 때문에 외국인 투자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기라도 해보십시오! 희토류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예산과 시간 또한 낭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방부 최운혁 장관 :

하…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중국과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중국이 북한 광산개발권의 81%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승계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기껏 얻은 희토류를 중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자는 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전에 중국 광산에서 채취되었던 희토류가 2% 내외의 품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북한은 1%내외로 편재성이 높은 중희토류보다는 경희토류가 많지 않았습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품위높은 희토류를 채집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자인 중국 기업이 81%나 개발권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자원이란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이 높아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 자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토류는 그 희귀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다.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 일본을 압박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희토류가 전략자원인 것을 고려할 때 과거 희토류카드를 영토분쟁의 압박카드로 사용하였으며 호시탐탐 우리의 자원마저 넘보려 드는 중국보다는 오랫동안 동맹관계였으며 기술적으로도 중국보다 진보된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안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관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 안전보장 장치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한미 양국은 에너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본 장관은 미국,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부 박정문 장관 :

네 국방부 최운혁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통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체성입니다. 따라서 한나라가 배타적으로 정주지역에 희토류를 개발하게 하는 방식이나 특히 계약을 승계해서 현재 채광권을 독식 중인 중국이 광산 개발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인데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위에 장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차로 희토류 채광 문제는 기술력도 좋고 친환경적인 미국 쪽 기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차 가공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최대한 싼 가격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기업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첨단기업체, 특히 김담우주과학단지와 염주첨단산업단지의 기업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희토류를 공급받아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북한의 희

토류 개발 산업은 미국, 일본,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미국입장에서도 계속 피봇투 아시아 피봇투 아시아하는데, 북한의 희토류 광산개발권을 우주산업 및 첨단 산업기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희토류 광산의 개발권, 당연히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뭐 자기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희토류를 개발하고 싶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통일한국에 가장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부처의 합의를 통해 입점기업들의 조건과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적 측면, 자원적 측면, 산업적 측면 등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통일한국에 가장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선정, 입점 시키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희토류라는 자원의 주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송영식 :

여러 장관님들의 열띤 논의를 통해 희토류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구체화 된 것 같습니다. 기재부장관님, 혹시 전체적인 Higher Korea Project의 예산 관련 하여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 박윤지 장관 :

현 회의 전체적 안건인 에 Higher Korea Project 맞춰 저희 기재부가 대략적인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통일 후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정주시의 희토류 관련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70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염주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총 350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김담우주과학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기재부는 관련 부처들에 총 508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도로, 전기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예산은 130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Higher Korea Project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책정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통일 1년 후인 지금 일자리 창출과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를 이용해 현 대한민국의 GDP를 올리는 것에 대해 저희 기재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지 얼마 안된 만큼 정부에서 Higher Korea Project에 필요한 비용을 다 제공해주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는 해외와 국내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박정문 장관 :

기재부 박윤지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재부 박윤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김담특별도시건설은 국가 내 예산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PPP의 활용이 있을 것입니다. 고전적인 ODA의 방식과는 다르게 PPP는 정부와 민간의 목적이 일치하는 사업에서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원조 형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민간 협력사업은 장기적인 계약형태를 통해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 사업에 자금조달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통해 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정부의 도움으로 투자보다 수익이 적은 리스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전에도 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개발을 활발히 했던 민간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저렴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윤지 장관 :

네,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1년 후인 지금 북한과 남한의 인력,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제도를 뚜렷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장관님들도 이에 맞춰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송영식 :

각 부처 장관님들의 적극적 협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Higher Korea project'가 통일한국의 과학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S#9. 대통령 마무리발언 및 안건 투표

대통령 송영식 :

그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무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고 잠시 뒤 스크린에 투표결과가 나타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안한 Higher Korea Project는 찬성 10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국무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산업을 위한 산업적, 과학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이 다져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하여 통일한국이 균형 된 발전과 우주과학과 산업분야의 세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Higher Korea project'를 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

제 3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이제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장서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어른들이 하는 "너희가 바로 통일세대다" 라는 말이 어느 순간 와 닿지 않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통일 포스터를 그릴 때만 해도 통일이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무력감은 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다. 오늘을 살기에도 바쁘기에 통일은 먼 미래 혹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가 된 것이다. 게다가 남북한의 관계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리타분하고 시대감각 없는 것으로까지 느껴진다. 나 또한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파일을 정리하다가 고등학생 때 그린 통일 포스터를 다시 보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다.

'대화'를 통해 '방향'을 잡고 '실행'하는 대한민국 통일,
우리 다 같이 통일을 밀어서 분단 해제 - 통일도 스마트하게!

5년 전 나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통일에 대한 접근법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다. 과거의 나의 생각을 반추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통일에 대한 고민을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의 도발에만 집중하고 그 뒤에 존재하는 열악한 환경과 인권과 같은 북한의 실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북한의 실태에 대한 무관심으로는 통일은커녕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대처와,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 분리되어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대가 변한만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대회는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우리가 주체되어 만드는 통일을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실현 가능한 안건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폐 군수공장을 TCA (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이라는 안건은 10년간의 중국 유학생활 동안 798예술단지의 발전을 직접 목격한 경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단지의 발전방향과 , TCA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을 차근차근 추가해 나아갔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려낸 TCA 단지는 교육과 기술 발전의 공간을 넘어,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 랜드 마크'로 완성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현실성 있는 하나의 안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본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 부처의 장관이 되어 본 안건을 심화시키고,현실성을 검토하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해 갖고 있었던 무력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 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

윤태빈(한성대학교 행정학과)

5월 27일 진행했던 통일 모의국무회의 결선을 끝으로,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달 간 준비하고 특히 근 2주간은 내 일상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했던 공모전을 드디어 마무리했다! 나름 다른 공모전 준비도 많이 해봤지만 이 공모전만큼 기억에 남을만한 것은 앞으로도 없을 거 같다.

아직도 예선으로 제출해야 할 대본 작성을 위해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서 20살 이후 밖에서 술 없이 처음으로 밤샌 순간이 생생하고, 예선 자료 제출 마감 15분전에 당산 파스쿠치 카페에서 몇 번씩이나 확인하며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누르던 그 떨리던 손을 기억하고, 예선을 마치고 뒤풀이 중에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는 통화를 받고 질렀던 환호성이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 같다.

통일 모의국무회의 대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정말 많았다. 먼저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한국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대회였고 이는 곧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우리는 정책 의제를 정하기 위해서 몇 번의 회의와 토론을 거쳤고, 우리 한울 팀은 우주산업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을 구상했다. 그리고 이 주제를 40분 분량의 대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외교,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법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운 좋게도 우리는 그 대본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5월 20일에 통일교육원에서 예선을 치르게 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의 통일교육원에서 우리는 사진도 잔뜩 찍으면서 그 날을 한껏 즐기다 왔고 그 날 저녁 우리는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기분좋은 통화를 받게 되었다.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날, 결선에서의 경연을 위해 우리는 예선 때 심사위원분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되새기며 우리의 의제를 좀 더 깊숙하게 파고 들었으며 또한 결선의 정책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결선에 진출한 두 팀의 대본과 정책 기획서를 받아 읽게 되었다. 팀원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했고 그들과의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머리를 모아 고민하면서 그 주제들에 대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나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함께한 한울 팀원 명 한분 한분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선까지 올라온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신기한 것 같지는 않다. 나는 팀장이었지만 팀의 막내였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형 누나들에게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자극 받았다. 그리고 한 달간 거의 가족처럼 매일매일 만나왔기에 우리 팀원들에게 너무 많은 정이 들어서 끝나고 한동안은 큰 후유증으로 남아 다른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주제도 몇 번 뒤엎고 밤도 여러 번 새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재미있게 대회를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등으로도 만족스럽고 또 자랑스럽다. 다만, 내가 많이 흔들리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 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능력 이상으로 다른 일들을 벌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팀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거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믿고 끝까지 같이 해준 한울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예선 때는 다른 팀의 경연을 못 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기하는 동안 멋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결선 때 만난 상대팀 팀원들도 경연과 토론을 지켜보면서 역시 모두 뛰어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인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와 북한의 잦은 충돌로 인한 북한에 대한 악화된 여론과 분위기 속에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이 더 없었던 거 같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막연한 통일의 개념을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깊게 공부하면서 머리 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만한 관심사로 남게 되었다. 결선 때 우리 팀과 다른 팀들의 심사 총평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통일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의 인식 변화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한국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고 우주산업·첨단산업, 메디컬 허브 구축 그리고 기술과 예술 융합 단지 건설 등을 통해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으로서 다시 대통합을 이루고 세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그리고 .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편익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통일이 되면 어떤 것을 활용해서 더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많은 것을 얻게 해주고 생각의 전환점이 되어준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기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배상윤(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나는 사실 이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2015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때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통일부에서 첫 통일 모의국무회의 대회를 열었는데, 나는 그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이라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전역 후에 꼭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전역 후 1년이 지나고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중 3월 말에 제3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모집요강을 보게 되었다. 그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통일 후 1년이 지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의국무회의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부풀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는 통일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허브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며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담대한 꿈을 나는 항상 품고 있었다. 그러한 원대한 꿈이 현실화 되었을 때 국가가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가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회 준비를 하는 내내 꿈꾸는 것만 같이 행복했다.

예선 대회까지 약 2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요강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을 모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선 원고를 준비할 시간이 꽤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싶었다. 그렇게 통일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여기서 우리 팀원 중 1명은 실제로 탈북을 하여서 한국에서 정착한 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해서 탈북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형도 있었다. 처음 10명이 모두 모였을 때는 서로 어색해서 이 대회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 팀장으로서 조금 막막하고 걱정이 더욱 앞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통일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통일 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 그렇게 약 2달 간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점점 원고가 완성되어갔고 그렇게 우리는 서류 전형에 통과되었고, 예선 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선 대회에서 우리가 준비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결선까지 진출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한 모의국무회의 주제는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이었다. 이는 통일 후 이북과 이남 간의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 주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분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북 지역의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긴급 의료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 이후 의료 면허 제도의 정착과 기초적인 의료 안전망 통합을 정책 안건으로 삼았다. 또한, 의료 안전망 통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북아 의료 허브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렇게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신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모의국무회의 대본에 담아서 열심히 대본 암기와 역할 연습에 들어갔다.

예선 통과 이후 결선에서는 상호간의 정책 질의 시간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였다. 상대팀의 대본도 열심히 읽으면서 상대팀의 논리의 장점과 허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또한, 우리가 발표한 정책 중에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결선에 임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결선에서 3등을 했지만, 결코 후회가 없었다.

서로가 대학이 달랐으므로 회의 장소도 번갈아 가면서 모였고 예선과 결선 대회 직전 2주는 카페에서 밤을 새가면서 대회를 준비하였다. 모인 횟수도 적어도 20번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 대회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들이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은 오히려 대회 끝나고 나서였다. 사실 이 대회의 취지는 통일 모의국무회의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최종 승자를 가려내서 수상을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통일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대회 준비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그저 대회 대본용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서 앞으로 각자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통일 후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꿈이 단순히 통일이 아니라, 통일 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번 통일 모의국무대회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렇게 우리는 통일 모의국무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었다. 새로운 여정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 이후의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 팀원 10명은 마음속에 함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 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이 대회는 그런 점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기보다는 기다려지기만 한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면서 대회를 함께 준비해준 팀원 모두에게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 아울러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

V.

제 3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예선 현장 **예선팀 진행 현장**

결선 현장 **결선팀 진행 현장**

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
년 5월 27일 (토)
한울림 정책 주제:
한반도 서부권지역

결선 현장

제5회 통일교육주간 2017.5.22~5.28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최우수상
상금 이백만원정
최우수상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참가권
한국 모의국무회
최우수상
상금 이백만원정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
최우수상
상금 이백만원정
최우수상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참가권

최우수상 시상

우수상 및 장려상 시상

청중단 질의응답 및 투표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발행일 : 2018년 4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화 02) 901-7074　팩스 02) 901-215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 unikorea.go.kr